

#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강화한다

### 도교육청, 컨설팅지원단협의회 열어... 내년 29개교로 확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일 전주 JS관광호텔에서 전북형 자유학기(년)제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

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유학년제를 시행했

으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192교,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는 17개교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중학교는 총 209개교다. 이번 연수는 2019년도 자유학년제 운영학교가 전주 전일중, 군산 나포중, 옥구중, 회현중, 정읍 배영중, 왕산여중을 비롯해 29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전북형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연수 및 사례발표를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잘 싸웠다' 전북 선수단 전국체육대회 종합3위 쾌거... 역대 최고

### 선수단 해단식·입상 격려회

'승리의 기쁨'을 전북도민들에게 선사해 준 영광의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선수단 해단식 및 입상 격려회'가 1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번 해단식은 전국체전에서 불꽃 투혼을 발휘·선전한 종목단체와 지도자,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단식에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전북체육회 고문·자문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선수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선수단 총감독이었던 최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송하진 지사에게 단기를 반환했으며, 이번 체전에서 상위입상한 17개 종목단체에서 우승 배를 봉납했다.

또 눈부신 활약으로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선수와 단체, 지도자에게는 포상이 수여됐다.

이번 체전에서 농구와 정구, 자전거, 배드민턴 종목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배구와 복싱, 레슬링, 씨름, 태권도, 스쿼시 종목은 종합 2위를 기록했다. 테니스와 핸드볼, 유도, 체조, 펜싱, 요트, 댄스스포츠도 값진 종합 3위에 올랐다.



1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린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해단식 및 입상자 격려식에 송하진도지사(가운데)와 선수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을러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육상의 유규민(전북체고)과 양궁 김경은(우석대) 선수를 비롯해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에게도 포상이 수여됐다. 송하진 지사는 치사를 통해 "전북 선수단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고된 종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선전을 해준 선수들이 자랑

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도내에서 치러진 이번 체전을 문화·안전·경제·참여체전으로 이끌어내 대내외적으로 전북을 알렸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됐다"며 "체육강도의 면모를 이어가기위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

국체전도 철저히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1725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4만9751점을 획득해 종합순위 3위를 달성했고 역대 최고의 성공체전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한윤봉 교수(공대 화학공학부)가 최근 열린 한국화학학회 2018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성일 재료상'을 수상했다.

# 전북대 한윤봉 교수 화학학회 '우성일 재료상' 수상

### 금속산화물 기반 나노소재 제조 응용 연구 성과 인정

전북대학교 한윤봉 교수(공대 화학공학부)가 최근 열린 한국화학학회 2018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성일 재료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화학재료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고, 재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학문적 성과가 큰 화학 공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한 교수는 금속 및 금속산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나노소재 제조와 이를 응용한 차세대 태양전지, 성인병 진단용 바이오센서, 투명 잉크개발 등 첨단재료 개발과 응용에 관한

연구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전북대에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SCI 논문 285편 (Google Scholar: 논문 인용횟수 10108, h-index 50), 국내외 특허 등록 16건, 산학협력연구 5건 등의 연구 성과를 얻었다.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산화물 나노구조 및 응용 (Metal Oxide Nanostructures and Their Applications)'에 관한 총 5권의 핸드북을 출판(American Scientific Publishers)하여 관련분야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호텔업계 명문으로 발돋움

### 메리어트그룹 인사총괄이사 초청강연·채용 설명회 열어

전주대는 1일 지역혁신관에서 서울 소재 메리어트 호텔 그룹 인사총괄이사 초청 특별 강연 및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석주 한국 메리어트 호텔 그룹 인사총괄이사(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최정근 인사이사(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등 서울지역 메리어트 호텔의 인사 책임자가 참석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룹은 전

세계 127개국에 6,50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호텔 체인 그룹으로 오늘 방문한 5명의 인사이사는 호텔의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 부서 배치 등 인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결정권자다.

취준생이 직접 기업 정보를 찾아서 기업에 지원하고 드물게 인사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채용 풍경과는 달리 이날은 이례적으로 서울



메리어트 호텔의 인사 총괄이사들이 지방까지 내려와 신규 호텔리어를 찾았다.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직접 찾아오는 만큼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호텔 업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 위상이 높아졌다.

최정근 인사이사(JW 메리어트 호텔 서울)는 "세계 최고의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와 인터내셔널과 세계 최고의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전주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함께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 서비스 아카데미를, 호텔식음료실습실 등을 갖춰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 국내외 호텔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교육행정직 전입희망자 공모

### 8일까지 총무과로 직접 접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행정 6~8급 전입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6급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7급은 현 직급 경력 5년 이내 사람, 8급은 해당 직급 1년6개월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입을 희망하는 교육행정직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총무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21~23일까지 이뤄진다. 최종 전입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